

조선통신사를 통해 일본에 전해진 K 문화

이제는 일본뿐 아니라 전세계에서 사랑받고 있는 K 문화. 여러분은 언제 K 문화를 처음 접했나요? K 문화 중에서 특히 관심 있는 장르는 무엇인가요? 사실 일본에 K 문화가 전해지고 인기를 얻게 된 것은 최근의 일이 아니라 지금부터 약 500 년쯤 거슬러 올라가는 1600 년대 에도시대부터 라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오늘은 에도시대 K 문화를 일본에 전한 조선통신사에 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조선통신사란 에도시대 12 번ⁱ 에 걸쳐 조선에서 일본을 찾은 외교사절단을 말합니다. 지금처럼 비행기나 신칸센, 자동차가 없는 시대에 500 명이 넘는 인원이 참가한 통신사는 서울을 출발해 부산에서는 배를 타고 쓰시마를 경유하여 오사카까지 간 후, 최종 목적지인 에도에서는 막부의 고관들을 알현하고 조선 국왕과 에도 장군의 국서를 교환하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조선에서는 인삼을 비롯하여 비단옷감, 호랑이 가죽, 붓, 먹, 살아있는 말과 독수리 등을 선물로 건넸고 답례 선물인 일본의 은과 갑옷, 투구, 장검, 금 병풍 등을 조선으로 가져갔습니다.

한편 통신사 중에는 일본의 고관과의 면담을 담당한 외교관 이외에도 화가와 문장에 뛰어난 학자, 군악대 등 K 문화를 선보이기 위해 파견된 인원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당시의 K 문화로는 한시 창화와 말을 탄 채 펼치는 곡예인 마상재가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한시 창화를 예로 들자면 일본의 민중은 조선의 문인과 직접 만나 문장이나 시를 얻기 위해 통신사의 숙소에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1764 년 통신사의 서기인 김인겸의 『일동장유가』의 1764 년 1 월 23 일의 기록을 보면 ‘식사 전부터 많은 일본인이 몰려들었다...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종이를)꺼내 이를 쌓으면 턱까지 차오른다. 또한 응해주고 나면 계속 끝도 없이 종이를 내민다...

우리를 만나기 위해 2~3 백리나 떨어진 곳에서 먹을 것을 챙겨 여기까지 와서 5~6 개월이나 기다렸다고 한다...우리의 일은 밤낮없이 쉴 틈도 없다.'고 해, 당시의 분위기를 리얼하게 보여줍니다.

저 멀리 조선에서 많은 사람이 일본을 찾아와 일본인과 직접 교류하며 K 문화를 선보이고 나아가 귀중한 선물을 상호 교환하는 것, 이야말로 양국의 친선을 소중히 여기는 동시에 '사이좋게 지내자'라는 의지의 표현이 아닐까요. 양국의 선조들은 K 문화의 전달과 수용뿐 아니라 한일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던 것이죠. 조선통신사의 역사 속에는 우리가 배워야 할 소중한 가르침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정경진(부산대학교)

ⁱ 에도시대 조선통신사의 일본 방문은 1607년부터 1811년까지 총 12 번에 걸쳐 진행되었다. 그러나 마지막 1811년 통신사행은 일본 측의 요청으로 쓰시마를 방문하는데 그쳤다. 이로 인해 실제 에도를 방문한 것은 1764년 통신사가 마지막이었다.